

협회소식/업계동정

최우수상에 정현지어린이 우유글짓기 입상자 시상식

한국유가공협회가 주최하고 농림수산부가 후원한 제10회 어린이 우유장학금글짓기대회에서 정현지양(진주신안국교 4년)의 “세쌍둥이와 고마운우유”가 영예의 최우수상인 농림수산부장관상을 차지했다.

또 금상에는 김용어린이(수원서호국교 1년)의 “나는 우유대장”과 이무선어린이(서울구정국교 4년)의 “몰래먹은 우유”가 뽑혔다.

한국유가공협회는 지난 11월 12일 서울서초동소재 축산회관에서 입상어린이가 학부모등 1백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입상자 시상식을 갖고 최우수상을 차지한 정현지에게 농림수산부 장관상장과 장학금 20만원을 수여했다.<사진>

또 금상 2명, 은상 5명, 동상 20명에게는 한국유가공협회장 상장과 장학금 15만원, 10만원, 5만원씩을 각각 수여했다.

이외에 장려상 입상자 50여명에게는 협회장 상장과 도서상품권 6매씩을 부상으로 전달했다.

국민건강과 제2세의 체위향상에 필수영양식품인 우유 및 유제품에 대해 어린이들에게 실생활에서의 체험을 글로 표현하게 함으로써 그 중요성을 인식시켜 소비확대를

통한 낙농·유가공산업의 병진적 발전과 어린이들의 작문실력향상을 위해 실시한 이번 글짓기 대회에는 전국에서 2천4명이 응모, 새싹회(심사위원장 윤석중회장)에서 심사를 했다.

유업체 생산간부등 대상 유제품 품질관리 워크숍

한국유가공협회는 지난 11월 11~12일 양일간 도쿄 글로리콘도에서 '94 우유 및 유제품의 품질관리 워크숍을 개최했다.

유업체 공장장등 생산직 간부 50여명이 참석한 이번 워크숍에서는 보사부 김진수 식품관리과장의

“95식품위생 관리지침 및 감시방향”, 강윤구 위생 정책과장의 “영업허가 제도개선방향”, 농림수산부 김경남 축산경영과장의 “낙농산업의 현황과 시책방향”등의 주제발표와 업계현안에 대한 의견교환이 있었다.

해태, 자연치즈함량 83.5% 「다이너스치즈」개발 시판

해태유업·주(대표 閔丙憲)는 최근 자연치즈 함량이 83.5%인 고순도 슬라이스 치즈 「다이너스 치즈」를 개발, 시판에 들어갔다.

국내 가공치즈중 자연치즈 함량이 가장 높은 이 치즈는 맛이 부드럽고 고소하며 두뇌발달 촉진물질인 DHA가 함유돼 있을 뿐만 아니라 무방부제, 무색소의 저지방 고칼슘제품이다.



◇ 제10회 우유장학금 글짓기 입상자 명단

최우수상(1명)

성명	학년반	학교명(주소)
정현지	4-2	경남 진주 신안국교

금상(2명)

성명	학년반	학교명(주소)
김용	1-1	경기 수원 서호국교
이무선	4-5	서울 강남 구정국교

은상(5명)

성명	학년반	학교명(주소)
소중한	2-1	전북 남원군 운봉국교
정인이	6-6	인천 남구 문남국교
최혜란	6-6	충북 옥천 삼양국교
탁미진	6-4	경남 진주 가람국교
김상아	5-9	인천 남구 도화국교

동상(20명)

성명	학년반	학교명(주소)
장현미	5-5	대전 동구 성남국교
민지영	6-5	인천 남구 문남국교
이명주	5-6	서울 구로구 매봉국교
장수혁	5-2	서울 관악구 난향국교
문지혜	5-1	경남 창원 한려국교
이은희	6-5	대전 동구 성남국교
방현주	6-7	경북포항 포항제철동국교
정원석	6-7	경북포항 포항제철동국교
한아름	2-2	서울 성동 경동국교
김민정	4-4	대전 대덕 와동국교
이현미	6-9	대구 동구 동촌국교
김유경	6-9	강원 강릉시 강릉국교
우경진	3-1	경남 마산 합포국교
윤지현	5-2	충북 청주 산남국교
장효진	1-10	경기 의정부 가능국교
이정우	6-1	충북 청원 유리국교
이경진	6-6	충북 청주 주성국교
오현민	4-4	서울 강동 성내국교
고태호	6-6	인천 남동구 남동국교
송지영	6-8	전북 남원시 남원중앙국교

장려상(50명)

성명	학년반	학교명(주소)
정구연	5-2	경기 고양덕은국교
염다영	6-7	경기 수원 화홍국교
장재형	5-3	경기 오산 매홍국교
한고은	4-8	경남 울산 약사국교
권계희	6-8	강원 강릉시 강릉국교
이보미	5-1	강원 강릉시 강릉국교
이경화	5-1	대전 서구 복수국교
김신아	4-1	전북 순창군 순창국교
최윤희	6-4	전북 이리시 이리국교
안경원	5-9	서울 은평 신사국교
서아람	6-4	전북 남원시 남원중앙국교
민자영	5-2	인천 남구 문남국교
이봉순	6-1	충남 홍성 구항국교
박하나	5-4	인천 남구 문남국교
조경지	5-7	충북 청주 덕성국교
배기강	6-7	경북 포항 포항제철동국교
원지영	6-1	충북 음성 대정국교
김정하	3-1	충북 단양 적성국교
김해혁	5-5	부산 북구 화명국교
김태현	6-2	경북 영풍 풍기북부국교
정인아	6-3	강원 영월 내성국교
윤찬웅	2-3	경북 경주 흥무국교
전보름	2-2	강원 영월 내성국교
박용운	2-5	서울 동대문 배봉국교
박은경	3-8	서울 동대문 배봉국교
강기훈	5-5	서울 중구 흥인국교
김우진	5-2	서울 성북 월곡국교
최성혜	2-5	경북 경주 흥무국교
황인경	6-2	경남 밀양시 밀주국교
황윤정	6-2	경남 밀양시 밀주국교
김성빈	5-3	경기 성남 수진국교
김태림	2-3	경북 경주 흥무국교
박민선	6-5	경북 경주 흥무국교
이혜진	5-4	경남 진주 신안국교
손수영	5-2	서울 서대문 미동국교
석희숙	5-2	서울 서대문 미동국교
고은지	5-5	경기 성남 수진국교
이지영	5-9	경기 성남 수진국교
주호연	6-7	서울 노원 상수국교
류수경	6-6	서울 양천 양명국교
김미화	6-4	부산 북구 모라국교
이진아	5-7	제주시 신광국교
장영심	5-6	제주시 신광국교
김은선	6-4	서울 중구 충무국교
유미숙	6-1	경기 수원 원천국교
노윤미	5-1	서울 양천 견남국교
김미리	6-2	서울 성동 경수국교
이아롱	4-2	서울 도봉 초당국교
박정임	2-5	서울 성북 동신국교
박시내	5-5	경기 부천시 부천서국교

규격은 1백g(20g×5매), 2백g(20g×10매), 4백g(20g×20매), 1천8백g(18g×1백매)등 4종이 있으며 소비자 권장가격은 각각 9백원, 1천7백50원, 3천3백50원, 1만4천5백원이다.

빙그레, 자체사옥 마련 이전

주, 빙그레(대표 申鍾薰)는 창업 27년만에 자체사옥을 마련, 지난 11월 13일 이전했다.

이 회사는 서울 압구정동 갤러리아 백화점옆에 지하 3층, 지상5층, 연건평 4천5백평 규모의 첨단 인텔리전트빌딩을 준공, 그동안 답십리 임대 사무실에서 벗어나 이날 본사를 이전했다.

빙그레는 이번 자체사옥 마련을 계기로 기업심벌 및 로고를 바꾸는 CI(기업이미지 통일화)작업을 추진키로 했다.

대표전화 3440-5600. 주소 :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518.

야쿠르트, 호상요구르트 「슈퍼 100 키위멜론」시판

한국야쿠르트유업·주(대표 李銀鮮)는 최근 키위와 멜론이 각각 6%와 4% 함유된 호상요구르트를 국내 처음으로 개발, 시판에 나섰다.

「슈퍼100 키위멜론」의 브랜드로 선보인 이 제품은 침체에 빠진 호상요구르트의 신수요창출을 목적으로 하고있으며 젊은 여성과 청소년층을 주요타깃으로 삼고있다. 소비자 가격은 1백10g 1컵에

3백30원.

서울, 내년매출 4천9백억 책정

서울우유협동조합(조합장 趙光鉉)은 내년도 매출규모를 올해 4천5백49억원에 비해 8.3% 늘어난 4천9백26억원으로 책정했다.

서울우유는 최근 예산총회를 개

최, 내년도 매출규모를 이처럼 확정하고 집유량도 6.2% 증가한 일일 평균 1천2백67t으로 잡았다.

서울우유는 특히 개방화와 무한 경쟁시대에 대비하기 위해 그동안의 보수적 운영에서 탈피해 마케팅 체계를 확립하고 고객우선과 고객 제일주의를 통해 서비스를 강화하기로 했다.

가 자발적인 조치로 취하고 있다"고 소개하고 도입시 문제점 등 제반 사항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이뤄진 뒤 리콜제도가 시행되어야 한다"고 신중한 입장을 표명했다.

(주)농심의 辛在翊 상무는 '리콜제도에 대한 식품산업계의 의견'이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유통과정의 식품에 대한 판매자 면책은 현행 식품위생법규에 규정된 리콜제도의 취지에 어긋난다"고 지적하고 "유통기한 경과제품의 유통에 대한 책임소재도 엄격히 가려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종합소식

유제품 리콜제도 내년에 실시
보사부, HACCP와 연계 추진

불량식품을 유통시킨 생산업체에 이를 회수토록 하는 리콜제도를 내년 중에 도입하되 1차적으로 인체 위해 우려가 높고 유통구조가 체계화된 유제품 및 식육가공품부터 시행될 전망이다.

보사부는 지난 12월 19일 이같은 내용의 리콜제도 추진방안을 마련, 한국식품공업협회 주관으로 열린 '식품 리콜제도에 관한 심포지엄'에서 발표했다.

이날 오후 한국여성개발원 강당에서 열린 심포지엄에서 첫 발표자로 나선 보사부 金鎭洙 식품관리과장은 "내년부터 시범적으로 시행되는 식품위해요소 중점관리

제도(HACCP)와 리콜제도를 연계시켜 추진하면서 리콜제도의 원활한 도입을 위해 초기에는 인체 위해 우려가 높고 유통이 체계화된 유제품과 식육가공품부터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발표했다.

金과장은 또한 리콜상황의 분류를 긴급상황과 우려상황으로 구분하되 시행 초기에는 긴급상황의 경우에만 제품을 회수토록 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리콜제도의 확실한 이행을 위해 리콜 전담부서를 정부 및 기업에 설치하고 정부의 리콜지시에 불응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벌과금부과 또는 대집행 비용징수 등의 방안을 식품위생법령에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외국의 리콜제도 운영실태'라는 주제로 발표한 千石祚 한국식품연구소 수석연구원은 "미국 및 호주 등의 리콜제도를 보면 리콜을 강제적으로 지시하지 않고 해당 업체

우유류등 3개 유가공품 원료
96년부터 원산지표시 의무화

유가공품중 우유류, 저지방우유류, 유당분해 우유류의 원료에 대한 원산지 표시가 96년 1월부터 의무화된다.

농림수산부는 최근 농수산물 가공식품의 유통질서 확립과 소비자의 식품선택에 대한 올바른 정보 제공을 위해 수입 및 국산농수산물에 이어 30개 농수산물 가공식품의 원료에 대해서도 원산지 표시대상품목으로 지정고시한다고 발표했다.

농림수산부는 그러나 가공식품 원료에 대한 원산지표시 의무화는 가공업체가 현재 보유하고 있는 포장재의 재고처분과 새로운 포장재 등의 인쇄 등을 고려, 약 1년간

의 준비기간을 거쳐 96년 1월 1일부터 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가공식품원료의 원산지표시 대상품목은 수입농산물을 원료로 한 제품을 국산농산물을 원료로 한 것처럼 소비자를 오인케 할 소지가 많은 품목(참기름, 인삼제품 등)과 수입농산물을 단순가공과정에서 쉽게 국산으로 둔갑시킬 수 있는 품목(볶은 땅콩 등)을 중심으로 선정했다.

농림수산부는 그러나 대부분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밀가루 등 원산지표시의 실익이 없는 품목은 제외했으며 시행결과에 따라 대상 품목을 확대할 방침이다.

원산지표시는 대상품목을 생산하는 가공업자가 그 품목에 사용된 원료중 물과 첨가물을 제외하고 함량(무게)이 제일많은 원료의 배합비율이 50%이상인 경우에는 그 원료 1개에 대해서만 표시하고 50%미만인 경우에는 그 원료와 함량순위 둘째원료에 대해 배합비율과 원산지를 표시해야 한다.

또 원료함량순위가 표시대상에 포함되지 않아도 그 원료를 제품명의 일부로 사용한 경우에는 그 원료에도 원산지표시를 해야 한다.

원산지표시방법은 가공식품의 포장재에 원산지를 표시하되 수입선이 다양한 제품은 수입원료 사용제품으로만 표시하면 된다.

가공식품의 원료에 대한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한 사람은 3년이하

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는 1천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농림수산부는 그동안 가공식품 원료에 대한 원산지표시가 통상마찰을 유발할 것으로 우려, 미국·호주 등에 이같은 방침을 통보하고 의견제시를 요청했으나 아직 아무런 대응이 없다고 밝혔다.

식품광고 제조원 표시의무화 분류광고금지 범위 포괄규정

앞으로 대중매체를 통해 가공식품을 광고하고자 하는 자는 제품명과 제조원을 반드시 표시해야 한다.

최근 보사부는 제조원 및 제품명을 표시하지 않는 업체가 늘어나면서 소비자들의 선의의 피해가 잇따르고 있어 이들 내용을 반드시 표시토록 법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실제 가공식품을 수입 판매하고 있는 롯데제과 해태제과 농심등 상당수 업체들의 경우 자사명과 제품명은 알아보기 쉽게 표기하고 있으나 제조원은 표시하지 않고 있어 국산품으로 오인하는 사례가 많은 상태다.

또한 다이어트식품이나 건강보조식품을 만병통치약인 것처럼 과장광고하고 있는 업체들은 정부의 적발을 우려해 업체명 없이 전화

번호등만 표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업체들의 경우 특히 제품명 조차 표시하지 않은채 다이어트나 건강증진에 커다란 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하고 있어 소비자들의 피해를 부추기고 있다.

아울러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0조(식품 및 첨가물의 제조 또는 가공업자의 준수사항)법 제2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식품 및 첨가물 제조나 가공하는 자가 지켜야 할 준수사항중 모유대신 사용되는 유아용 식품인 조제분유·우유에 관하여 신문 잡지 라디오 텔레비전을 통한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된다는 규정을 악용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나열식에서 대중광고를 할 수 없다고 포괄적으로 규정할 방침이다.

조제분유와 조제우유생산업체들은 실제 현행 법규가 특정 매체만을 지정하고 있는점을 악용하여 파스퇴르분유 남양유업등 대부분 업체들이 버스나 전철을 통해 대중광고를 행하고 있어 본래의 취지를 퇴색시키고 있는 점을 감안해 이를 포괄적으로 포함시키기로 방침을 세웠다.

한편 보사부는 이같은 내용을 업체가 의무적으로 지키도록 하기 위해 현재 개정작업이 추진되고 있는 식품위생법시행규칙에 반영키로 했으며 빠르면 내년상반기부터 본격 적용될 것으로 예상된다.